

# 죽음의 미적 근대성에 대한 일 고찰\*

-이광수의 「만영감의 죽음」을 중심으로-

노상래\*\*

|| 차례 ||

1. 서론
2. 왜 일본어소설인가?
3. 조선의 '아귀'가 죽음을 통해 획득한 미적 근대성
4. 결론

## 【국문초록】

차남 봉근의 죽음은 춘원의 가치관에 일대 변혁을 가져온다. 특히 이념으로서의 문학에서 미적 대상으로서의 문학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의 일본어 소설 「만영감의 죽음」은 이광수 문학에 있어 하나의 분기점이라 할 수 있다. 비록 일본어로 쓰인 작품이긴 하지만 이 소설은 이전에 보여주던 그의 문학세계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민족주의적 거대담론이나 안창호나 이순신으로 대표되는 문제적 개인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소설이라는 점에서 비로소 「만영감의 죽음」은 근대소설의 본질에 근접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주인공 만영감의 죽음을 통해 근대의 위물성을 고발함과 동시에 자본과 결합된 전통 질서의 그릇된 권위를 해체하려는 춘원의 작가정신은 이전의 문학세계에서는 볼 수 없었던 대목이다. 지고지순한 사랑을 위해 죽음까지 불사하는 만영감을 통해 춘원은 죽음의 미적 근대성을 획득하고 있었다. 이 미적 근대성은 춘원 문학이 도달한 소설의 근대성을 의미하며, 향후 전개될 그의 소설을 가능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주제어 : 사람에 대한 글쓰기, 죽음, 미적 근대성, 대중성, 일본어 글쓰기

\* 이 연구는 2008학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것임.

\*\*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 1. 서론

‘국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대내적인 개념을 지칭한다. 그리고 ‘한국어’라고 하면 그것은 대외적인 개념으로 인지된다. 그런데 식민지하 조선에서 조선어가 국어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일본어가 국어로서 기능하게 되었을 때 조선인 문인들에게 언어 문제는 심리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우면서도 곤란한 양상을 야기하였다. 일본어를 국어로 인정할 경우 이민족인 조선인에게 국어는 대내적인 개념인 동시에 대외적인 개념으로 인지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은 “일국어가 일언어라는 명목으로 아이누어나 류쿠(琉球)어를 무시하고, 지방어를 방언으로 억압하며” 일본어를 “국민국가에 필요한 표준어로서 균질화하려 한 것”<sup>1)</sup>처럼 조선어 또한 그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조선문인이 일본어를 국어로 인정하건 하지 않건 일본어로 창작할 경우 민족적 감정에 위배됨은 물론 일본의 식민지인 동화정책에 동조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심리적 부담감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당시 일본어 수용은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하나는 1930년대가 되면 일본의 식민지이거나 준식민지인 대만·조선 및 만주국에서는 “독자적인 ‘국어’의 창출이나 보급이 시도되고 있었고,<sup>2)</sup> 다른 한편에서는 식민지 지배에 저항하기 위해 일본 ‘국어’가 수용되어 일본 ‘국어’로 쓰인 문학이 독서시장을 형성”<sup>3)</sup>하게 되기 때문에 조선인의 일본어 창

1) 藤井省三, 『東アジアの諸「國語」文學と「國民」映畫』, 『帝國』日本の學知 第5券-東アジアの文學・言語空間, 東京: 岩波書店, 2006, 10쪽.

2) 조선의 경우 1933년 11월 4일 조선어학회에서 발표한 ‘한글맞춤법통일안’이 대표적인 사례이며, 중국의 경우 1928년 국민당에 의한 중화민국 통일 이후 중국 대륙의 규모에 맞는 문화시장이 형성되며, 북경어 ‘국어’문학의 황금시대가 열린 것이 그 좋은 예일 것이다.

3) 藤井省三, 앞의 글, 2쪽. 저항수단으로서의 일본어 차용은 김사량의 일련의 소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작은 문학 내적인 문제 뿐 아니라 문학 외적인 정치적 논리까지 혼용되어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는 점이다.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어떤 작가의 일본어 수용이 자발적인 일본어 습득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식민지 지배에 저항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밝히는 일이다. 이것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은 민족적이나 반민족적이나, 즉 친일이나 아니냐를 가리는 잣대가 되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민족(민족주의)에 근거한 수탈과 저항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는 친일이라는 개념을 필수적으로 동반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민족이라는 잣대를 벗어던지고 개인과 사회의 분화라는 잣대를 가지면 제국주의 통치에 대한 저항 행위는 다른 양상을 띠게 될 것이다. 거기에 식민지 모어인 일본어 글쓰기가 가로놓여 있는 것이다. 일본어 글쓰기가 반드시 친일일 수 없는 근거가 된다.

수탈과 저항의 사고로는 개인의 정체성이 민족이라는 거대담론에 의해 어떻게 억압되고 무시되었는지를 밝히기란 쉽지 않다. 특히 이광수의 일본어소설 『만영감의 죽음』<sup>4)</sup>은 수탈과 저항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한 발 떨어져 바라보면 소설의 내적 맥락 속에서 사뭇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다. 민족, 해방, 역사라는 거대담론이 혈육, 효, 가족애 등 사적 관계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존재할 수 있는가를 따져보는 것은 『만영감의 죽음』에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소설의 주된 판단 기준이 “항상 독특하고 그러므로 새로운 개인적 경험의 진실”<sup>5)</sup>에 있다면 『만영감의 죽음』은 그런 점에서 관심을 요하는 작품이다. 왜냐하면 『만영감의 죽음』에서부터 비로소 춘원은 새로운 경험에 바탕하여 거대담론에서 비껴난 글쓰기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4) 이광수, 『만영감의 죽음(萬翁の死)』, 『改造』, 1936. 8.

5) 이언 와트, 전철민 역, 『소설의 탄생』, 열린책들, 1988, 22쪽.

이 작품은 혈육이나 효, 가족애 등 사적 관계에서 애정 행위와 근대의 위물성은 어떤 유기적 관계 하에서 미적 가치를 갖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춘원에게는 새로운 방식의 글쓰기이다. 이런 글쓰기는 “피눈물이 나도록 가슴이 아팠”<sup>6)</sup> 차남 봉근의 죽음이 촉발한 것이다. 봉근의 죽음으로 춘원은 민족이라는 거대담론이나 안창호·이순신 같은 문제적 개인에서 벗어난 글쓰기를 시도한다. 그 글쓰기는 크게 자신에 대한 글쓰기와 사람에 대한 글쓰기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둘은 명확히 분리되기보다는 상보적인 관계에 있다. 자신에 대한 글쓰기는 『그의 자서전』에서, 그리고 사람에 대한 글쓰기는 『만영감의 죽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만영감의 죽음』은 사랑과 전통적 질서가 상충하여 빚어내는 갈등 양상이 서사의 중요한 골격을 이룬다. 특히 한 집단의 세계관이나 문화적 규범과 가치가 개인의 그것과 상충할 때 개인은 어떤 쪽을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토착적인 문화와 정체성을 무시하거나 경멸해서는 안 되겠지만 의식의 예속화가 지속될 경우 한 개인의 정체성은 훼손되고 말 것이다. 『만영감의 죽음』은 전통적인 의식체계와 담론으로부터 탈각하는 대신 사랑을 선택했을 경우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다만 이 소설이 일본어로 발표되었다는 것, 노신의 『아큐정전』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런 점을 함께 고려할 때 이 소설의 의미는 제대로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만영감의 죽음』이 춘원문학에서 어떻게 자리매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영감의 죽음을 통해 어떤 미적 근대성을 획득하게 되는지를 살펴보려 한다. 그럼으로써 이전에 지속해오던 춘원의 글쓰기가 향후 어떤 모습을 띠게 될지 가늠해 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만영감의 죽음』 발표 당시 춘원의 문학관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기 위

6) 이광수, 『그의 자서전』, 『이광수전집 6』, 삼중당, 1973, 347쪽.

해 가능한 한 이 작품이 발표된 때를 전후한 자료들에 국한하여 논의를 전개할 것임을 밝혀둔다.

## 2. 왜 일본어소설인가?

김미영은 『만영감의 죽음』이 “일본예찬과 조선 폄하”의 소설로 “조선인의 습관, 문화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진”<sup>7)</sup> 작품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그러면서 『만영감의 죽음』에 대해 다음과 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두 번째 유형의 작품들에 나타난 조선(인)의 표상에는 불합리와 더러움, 교양 없음, 거짓을 행함 등의 부정적인 서술어들이 동원되고 있다. <만영감의 죽음>에 그려진 조선(인)의 삶은 외형적 틀은 근대적인데 내용은 전근대적인 불합리로 채워져 있다.<sup>8)</sup>

위의 분석대로라면 『만영감의 죽음』은 마치 『민족개조론』에서 언급했던 <못난 조선인>의 허구적 산물처럼 이해된다.<sup>9)</sup> 『만영감의 죽음』을 민족개조론의 허구(fiction)적 산물로 받아들이는 것은 곤란하다. 김미영의 글에

7) 김미영, 『이광수(1892-1950)의 일본어 소설 연구』, 『한국현대문학학회 학술발표회자료집』, 한국현대문학학회, 2008, 86쪽.

8) 위의 글, 87쪽. 이 논문에는 도망간 여자를 작부로 규정하고 있는데(87쪽) 사실 소설 어디에도 작부 출신이라는 말은 없다. 다만 경성의 직업소개소에서 소개 받아 데려온 여자라고 묘사되어 있을 뿐이다. 그리고 구장과 ‘나’의 대화 속에서는 그 여자를 두고 ‘뺏아빠진 여자는 아닌 것 같아요’라는 말도 나온다. 이 말은 작부 출신이 아니라는 말이다.

9) 『민족개조론』에 대한 이중오의 분석은 친일문학 혹은 이광수 문학의 친일성 여부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자세한 것은 이중오의 『이광수를 위한 변명』(중앙 M&B, 2000) 192~212쪽 참조할 것.

대한 타당성 여부를 밝히려면 왜 일본어인가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김미영의 글은 ‘친일문학’이라는 범주를 상정해두고 이광수의 ‘일본어소설군’을 바라보았고, 그런 류의 작품 중 ‘하나’로 『만영감의 죽음』을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어로 쓰인 작품은 친일작품일 것이라는 언어중심주의가 낳은 하나의 오류이다. 그렇다면 춘원은 ‘사람’에 대한 글쓰기를 시도하면서 왜 일본어로 창작한 것일까?

『만영감의 죽음』이 발표되던 해인 1936년 1월호 『신인문학』에는 춘원의 조선어관을 엿볼 수 있는 글이 한 편 실린다. 조선어에 대한 춘원의 분명한 관점이 이 글에는 잘 드러나 있다.

춘-나 역시 동감입니다. 그러나 조선어로는 편지 한 장두 제대로 못 쓰는 열치기들이 말을 많이 하지요.

이-그럼은요. 조선말이 귀한 줄을 알아야 해요. 조선 사람은 너무 자존심이 없고 사대사상만 있어요. 허란설현(許蘭雪軒), 신자하(申紫河) 같은 이들도 한문으로 시를 많이 썼는데 중국인이 보고 잘 지었다고 하니까. 그때야 좋다고들 했지요. 요새도 그래요. **장혁주 씨 같은 이는 일어로 소설을 쓰는데, 동경서 발표만 되면 훌륭한 줄만 알거든요.**

춘-참 그렇더군요. 장씨의 『カルボウ』를 요새 읽었는데, 아무 것도 아니더군요. 그것을 조선어로 번역해 놓는다면 삼문의 값도 없겠던데요……

이-기가 막히지요. 조선인의 버르장이가 자기 해는 모두 나쁜 줄만 알아요. 그것부터 고쳐야 해요. 옛날에는 명나라를 조종(祖宗)으로 알아서 명나라 것이면 모두 좋은 것으로만 알더니, 요새는 조종이 흠씩 늘어서 하나는 모스크바, 또는 영국, 미국. 이렇게 많아졌지요. (중략)

이-무엇보다도 조선말을 잘 발달시키고 유지하고 세련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문인들의 책임이지요. 아름다운 시와 좋은 소설을 많이 써서 조선말을 아름답게 또는 풍부하게 해야 합니다. 또는 문예 작품이 자주 많이 나와 해요. (중략)

이-언어는 그 나라 그 국민의 재산이요 보배거든요. 이것을 좋게, 아름

답게 풍부하게 만드는 문인이 아니고는 도저히 할 이가 없습니다.<sup>10)</sup> (강조 : 인용자)

“언어는 그 나라 그 국민의 재산이요 보배”라는 생각과 문인이 언어를 “좋게 아름답게 풍부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의 근저에는 조선어가 외 국어에 비해 전혀 손색이 없다는 춘원의 언어관이 자리하고 있다. 춘원의 이런 언어관이 약 반년이 지난 1936년 8월, 『만영감의 죽음』을 발표할 당시에 돌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춘원은 『만영감의 죽음』을 발표한 직후인 그 해 10월에 ‘조선문학의 발전책’을 논하는 자리에서도 조선어와 조선문화에 대해 작가나 평론가들이 깊이 공부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sup>11)</sup> 뿐만 아니라 『만영감의 죽음』을 발표할 때까지 춘원의 어떤 친일적 언사나 행동, 작품의 기미를 찾을 수 없다. 그리고 위의 인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일본어로 창작을 하던 장혁주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서까지 일본어 창작에 대해 본능에 가까운 거부감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춘원의 이런 언어관은 어제오늘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오랫동안 갈무리된 하나의 신념이었다. 다음의 인용은 그런 사실을 뒷받침해준다.

어떤 나라의 문학은 그 나라의 어학이라는 흙에 핀 꽃이다.

국어를 떠난 문학이 있을 수 없고 또 국어도 문학으로 하여 보유되고 세련되고 발달되는 것이다.

조선문학이 조선어 위에 성립될 것은 무론이다.<sup>12)</sup>

10) 『이광수씨와의 일문일답기』(『신인문학』, 1936. 1), 『이광수전집 8』, 645쪽. 이 인용에서 ‘춘’은 춘성(노자영), ‘이’는 이광수를 말함.

11) 이광수, 『조선문학의 발전책』(『조광』 1936. 10), 『이광수전집 8』, 612~614쪽 참조.

12) 이광수, 『문학에 대한 소견』(『동아일보』 1929. 7. 23~8. 1), 『이광수전집 10』, 458쪽.

위의 인용은 물론 조선문학은 “조선문으로 쓴 문학”<sup>13)</sup>이라는 자기규정 이라든지 “언어가 멸망되면 정신도 멸망되는 것이며, 언어가 보존되면 정신도 보존”<sup>14)</sup>된다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만영감의 죽음』을 발표할 당시까지만 해도 춘원의 언어관은 확고한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어로 쓴 『만영감의 죽음』은 춘원의 문학자리에서는 일탈임에 틀림없다.

1936년 11월호 『삼천리』에는 『장편작가회의』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되는데, 당시 신문이나 잡지 등에 인기리에 연재되고 있던 장편소설 작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저마다의 문학관에 대해 피력한다.<sup>15)</sup> 이 자리에서 춘원은 문학을 여기(餘技)로 여기던 수단으로서의 글쓰기에서 탈피하여 문학을 예술 그 자체로 용인하는 발언을 한다. 춘원의 입장에서 보면 글쓰기의 일대 혁명이라고 할 만하다.

진정한 인류의 행복을 위한다는 참된 예술품이라면 모든 작가는 각기 자기의 개성과 성격에 따라 이것도 그럴 수 있을 것이요, 저것도 그럴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모든 작가들은 자기의 개성과 개성에 따라 어떠한 제한과 교섭도 받지 않고 참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술』만 창조한다면 어떤 것을 그려도 좋을 줄로 안다.<sup>16)</sup>

13) 이광수, 『조선문학의 개념』(『신생』 1929. 1), 『이광수전집 10』, 451쪽. 본격적으로 친일적인 일본어 소설을 창작하던 시기에도 춘원은 “조선인의 생활, 조선인의 감정은 당분간은 조선어가 아니고는 완전히 표현되지 않는다는 것만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니 여기 조선문학의 존재이유의 제1조”(이광수, 『심적 신체제와 조선문학의 진로』, 『매일신보』, 1940. 9. 10.)가 있다고 말할 정도로 조선어에 대한 애착은 남달랐다.

14) 이광수, 『외래어와 조선어』 강연기(『계명』 1932. 7), 『이광수전집 8』, 659쪽.

15) 이 회의에 참석한 작가는 『애육의 피안』(『조선일보』)의 춘원, 『불연속선』(『매일신보』)의 황보, 『반려』(『삼천리』)의 회월, 『후회』(『조선중앙일보』)의 만해, 『황진이』(『조선중앙일보』)의 상허, 『금삼의 피』(『매일신보』)의 율탄, 『여명기』(『동아일보』)의 장혁주, 『밀랍』(『동아일보』)의 박말봉, 『황혼』(『조선일보』)의 한설야 등이다.

16) 『장편작가회의』(『삼천리』 1936. 11), 『이광수전집 8』, 655쪽.

“예술만 창조한다면 어떤 것을 그러도 좋을 줄로 안다”는 말에서 계몽적이거나 목적적인 글쓰기와의 거리감이 느껴진다. 그리고 그가 생각하는 ‘예술’에 대해 춘원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그런데 요사이 세상에서는 소위 『예술성』이라 하면 의례히 가장 알아보기 어려운 말로 몇 사람 안 되는 지식층의 사람만이 감상할 수 있는 일종 병적인 것으로만 해석하는 모양인데, 원래 『예술』이라면 어느 누구나 다 읽고 알 수 있는 즉 대중적인 것이라야 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sup>17)</sup>

위의 인용에서 눈여겨 볼 것은 ‘예술성’은 ‘대중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일러 예술적 대중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은 춘원의 순수한 계몽적 글쓰기와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예술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대중적’이어야 한다는 춘원의 예술관에 비추어 본다면 『만영감의 죽음』 또한 비록 일본인 독자들이긴 하지만 예술성이 담보된 대중적 글쓰기를 전제로 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대중성은 이전의 문학관에서 한 걸음 나아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양주동과 주고받은 논전에서 이광수는 자기 소설의 독자, 혹은 소설의 대중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를 피력한 적이 있다.

내가 소설을 쓰는데 첫째 가는 목표가 『이것이 조선인에게 읽혀지어 이익을 주려』하는 것임은 물론이다. 나는 내 소설이 조선인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읽혀지기를 바라지 아니한다. 내가 생각하기에 읽을 것을 가지지 못한 이는 조선인이요, 또 내가 조선인인 까닭이다. 내 소설은 영미국인에게는 전연히 불필요한 수지 문탕이 일는지 모르지마는 조선인에게는 혹시 필요한 독물(讀物)이 될는지 모른다. (중략)

나는 이 생각을 내어 던지려고 생각해 본 일도 있다. 나는 일문이나 영문으

17) 위의 글, 655쪽.

로 소설을 써 볼까. 조선이라는 나를 엮어버린 결박을 벗어 버리고 자유로운 일세계인으로 세계 문단을 향하여 한번 소리 쳐 볼까 하는 유혹도 나지 아니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나는 그런 때마다 배의(背義)라는 일종의 강박관념을 가지게 되었다. 세계는 내가 아니라도 넉넉하다. 그러나 조선은 너같은 것이라도 요구한다 하는 소리를 나는 듣는다. 이것을 민족주의적이라고 부르는지 모른다.<sup>18)</sup>

이전까지 춘원은 자신의 소설 독자를 조선인에게만 한정했었다. 그리고 그런 제한된 독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특수성은 가질 수 있었을지 모르나 보편성을 획득하기는 어려웠다. 이미 독자를 조선인으로 한정해 둔 글쓰기였기 때문에 계몽적 글쓰기라는 주제 또한 그 범주를 뛰어넘기 어려웠다. 따라서 문학의 미적 근대성의 측면에서 보면 춘원의 계몽적 글쓰기는 전인류적 대중성이나 보편성을 획득하는데 한계를 가진 절름발이 문학이었고, 이것을 춘원은 ‘민족주의적’이라고 믿었던 것 같다. 이런 문학관은 다음의 인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내가 소설을 쓰는 구경(究竟)의 동기는 내가 신문기자가 되는 구경의 동기, 교사가 되는 구경의 동기, 내가 하는 모든 작위의 구경의 동기와 일치하는 것이니, 그것은 곧 『조선과 조선민족을 위하여 봉사—의무의 이행』이다.<sup>19)</sup>

문학적 글쓰기가 신문기자나 교사의 동기와 동일시되는 한, 춘원의 글쓰기는 문학적 보편성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미 춘원은 글쓰기의 세계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음을 앞선 인용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그 포부를 주저앉혀야 했던 것은 강한 민족주의에 근거한 배외감 때문이었다. 조선민족을 배신할 수 없다는 민족주의적 태도는 춘원의 글쓰

18) 이광수, 『여의 작가적 태도』(『동광』 1931. 4), 『이광수전집 10』, 460쪽.

19) 위의 글, 462쪽.

기를 제한했던 것이다.

그러나 봉근의 죽음은 배외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틈새를 만들어 준 셈이다. 조선민족만을 위한 제한된 독자층의 글쓰기나 계몽의 기획이라는 특수한 주제의 글쓰기에서 탈피하여, ‘자유로운 일세계인’으로 “세계 문단을 향하여 한번 소리쳐” 보고 싶은 욕구가 다시 살아났다고 볼 수 있다. 『만영감의 죽음』은 독자층의 확대와 계몽적 글쓰기의 탈피라는 이중적 의미가 고스란히 용해되어 있는 미학적 글쓰기라는 전제는 이렇게 성립되는 것이다. 다만 독자층의 확대가 미학적 판단의 근거는 될 수 있지만 당시 첨예하게 부각되는 민족적 감정을 어떻게 추스를 수 있을 지에 대한 문제는 별개의 것이다. 문학은 완벽한 자가재생산시스템이 아니다. 일탈이 언제나 허용되는 것이다. 그 일탈은 한 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다. 『만영감의 죽음』이 바로 그런 경우다.

정백수는 『만영감의 죽음』에 두 가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하나는 “한국어에서 일본어로 창작 언어가 전환되는 계기를 노정하는 텍스트”라는 것, 다른 하나는 “일본어를 모어로 하는 독자층을 직접 상징하고 있다는 점”이다.<sup>20)</sup> 그런데 『만영감의 죽음』이 갖는 문학사적 맥락이나 미학적 가치를 토대로 할 경우 전자의 의미는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다. 『만영감의 죽음』은 1936년 8월에 발표되고, 다음의 일본어 작품인 『산사의 사람들(山寺の人人)』이 1940년 5월에 발표되니, 그 사이에 약 4년의 공백기가 있다. 『만영감의 죽음』이 일본어 창작의 전환점에 해당한다면 문학사적으로 볼 때 이광수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작품일 터인데, 조선의 일본어 문학 작품을 정선한 『조선국민문학집(朝鮮國民文學集)』(1943), 『신반도 문학선집(新半島文學選集)』(1944), 『신반도문학선집(新半島文學選集) 2』(1944), 『반도작가단편집(半島作家短篇集)』(1944) 등에는 수록되지 않는

20) 정백수, 『한국 근대의 식민지 체험과 이중언어 문학』, 아세아문화사, 2000, 161쪽.

다. 대신 「산사의 사람들」이 『조선국민문학집』과 『신반도문학선집』에 실린다. 이는 이광수의 일본어소설에 대해 평가할 경우, 「만영감의 죽음」과 「산사의 사람들」을 다른 각도에서 평가해야 함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광수의 본격적인 일본어창작의 전환은 「산사의 사람들」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럴 경우 「만영감의 죽음」은 『조선국민문학집』 등에 수록된 이광수의 작품과는 다른 문학사적·미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만영감의 죽음」은 이후의 일본어 작품들이 친일문학적 성격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점에 비해 표현어만 문제 삼지 않는다면 후대의 작품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미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정백수의 “일본어로 창작어가 전환되는 계기”라는 판단은 좀 더 세밀한 관찰을 요하는 대목임을 알 수 있다.

춘원의 일본어 창작은 조선문학이 도달한 현 시점에서의 성과와 그에 대한 불만이 일본어창작의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춘원은 「만영감의 죽음」이 발표되기 전인 1932년 6월호 『가이조(改造)』에 조선문학의 전반적인 개략을 소개한 「조선의 문학(朝鮮의文學)」<sup>21)</sup>이라는 논평을 발표한다. 이 글은 『가이조』사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이 글 첫머리에서 춘원은 조선문학의 현주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금일의 조선문학은 아직 세계 시장에 내놓을 만한 정도에 도달치 못하였다. 작가도 작품도 수에 있어서도 질에 있어서도 유감이나 아직 역사를 지닌 일민족의 문학으로써 널리 내어 놓 수 없다.<sup>22)</sup>

21) 이 글은 번역되어 『삼천리』 1933년 3월호에 게재되며, 다시 개고(改稿)되어 「조선문학의 발전-경술(庚戌)이래 25년간-」이라는 제목으로 『삼천리』 1934년 7월호에 실린다.

22) 이광수, 「조선의 문학」(『삼천리』 1933. 3), 『이광수전집 10』 464쪽.

‘금일의 조선문학’이 도달한 ‘유감’스러운 현실을 안타깝게 여기는 춘원의 심정에는 ‘세계 시장에 내놓을 만한 정도’의 작품이 조선에서 나오기를 바라는 염원이 스며있다. 그런데 이 글에서 눈여겨 볼 대목이 있다. 하나는 조선시대에 ‘조선어의 조선문학’을 ‘전혀 돌보지 않고 ‘중국문학에 탐닉한 조선인’은 ‘민족에 상응되는 문학을 제작치 못하’였다는 신랄한 비판이다. 훈민정음이 창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 문인들이 사대주의에 기울어 외국어인 한자를 사용한 것에 대한 매서운 지적이다. 이광수의 조선어관은 여기서도 빛난다. 다음으로 눈여겨 볼 것은 당시에 활동하던 근대문인들을 소개하면서 자신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애국시가 시대의 작품이나, 최남선, 주요한, 김안서, 박월탄, 김소월, 김파인, 이은상, 이병기, 정인보 같은 시인이나 시조시인, 그리고 이인직, 김동인, 현병허, 염상섭, 나도향 및 박영희·김기진으로 대표되는 프로문인을 이 글에서 소개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자타가 인정하는 조선의 대표 문인인 자신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특이하다. 글 말미에 자신의 역할에 대해 일체 쓰지 않는 것이 ‘바른 줄을 알기 때문’이라는 첨언이 있긴 하지만 춘원은 스스로 이상의 문인들과는 유비될 수 없는, 질에 있어서나 작품의 수로 보거나 무엇으로도 ‘세계 시장에 내놓을 만한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 본보기의 글쓰기로서 『만영감의 죽음』을 “동양의 가장 큰 서울이요, 정치의 중심이요, 세계문화의 몇 개 중심 중의 하나라는 동경”<sup>23)</sup>에서 발표한다면 장혁주와는 다른 조선문학의 세계적 수준을 입증하게 될 것이라고 춘원은 판단했음 직하다.

그리고 춘원의 일본어글쓰기는 당시 검열제도와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다. 춘원은 조선의 검열제도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기실 그 관심은 우려의 표명이다.

23) 이광수, 『동경구경기』(『조광』 1936. 11), 『이광수전집 9』, 187쪽.

아무러나 나는 글을 쓸 때에 반드시 조선인—그중에도 나와 같이 젊은 조선의 아들딸을 염두에 둔다. 나는 붓을 들고 종이를 대할 때에 그들 젊은 조선인에게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통정이 샘솟듯 솟아 나옴을 깨닫는다. 그것이 듣는 이에게 유익한 것인지 불필요한 것인지 모르거니와, 내 맘에 말하지 아니치 못할 것을 느낀다. **그 중에서 나는 경무국이 허할만한 재료를 골라서 원고지에 적기를 시작하는 것이다.**—이것이 내 소설이다.<sup>24)</sup> (강조 : 인용자)

경무국의 검열을 거쳐야만 소설이 발표될 수 있었다는 것은 소재나 주제가 글쓰기 전부터 제한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제한된 글쓰기는 작가의 창작 의욕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표현 방식도 강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사과의 자유로운 유로를 방해할 것이며, 정치적 시스템에 흡수될 것을 강요한다. 그런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지속될수록 작가는 구속에서의 자유를 갈망하게 될 것이다. 춘원은 조선의 문학이 발달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검열제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문학의 나라라는 조선에 있어 이만큼이나 문학에 냉담하다고 하는 것은 좀 이상한 느낌을 느낀 것이로되, 그것은 이유가 있다.

제일, 조선인은 이 삼십년래 평안히 문학이나 예술을 맛볼 만한 그러한 여유를 갖지 못하였었다. (중략)

다음에 조선인의 생활의 경제적 궁핍은 해를 따라, 날을 따라 궁핍하여진다.

문학이나 예술을 좋아할 마음의 여유도 또는 경제적 여유도 없다. (중략)

제삼에, 조선의 검열제도이다. 이것은 조선인이 되어보면 참으로 상상도 안 된다.<sup>25)</sup>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구속받지 않는 자유로운 글쓰기는 모든 작가들의

24) 이광수, 『여의 작가적 태도』, 460~461쪽.

25) 이광수, 『조선의 문학』(『삼천리』 1933. 3), 『이광수전집 10』, 서울출판사, 1999, 68쪽.

염원이다. 그러나 조선의 현실적 상황은 작가들에게 검열제도라는 시스템에 길들여지기를 원했다. 제한된 테두리 속에서만의 자유가 보장되었던 것이다. “테에마를 찾아 마치 간판장이 그 주인의 마음에 맞도록 의장을 하듯이”<sup>26)</sup> 쓰는 글은 의사글쓰기이다. 자유로운 글쓰기는 당시 조선문인들의 공통된 갈망이었다. 검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일본어 글쓰기는 검열을 피할 수 있는 한 방편일 수 있었다. 그럴 경우 소설의 스토리나 주제가 검열 과정에서 문제가 될 만큼의 내용을 담고 있는지가 문제이다. 이 부분은 다음 장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sup>27)</sup>

결국 춘원은 신앙처럼 받들던 조선어관에도 불구하고 예술적 대중성이 확보된 미학적 글쓰기, 조선문학의 세계적 수준관 제고, 그리고 검열제도라는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글쓰기로 『만영감의 죽음』을 창작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어글쓰기가 당시 민족적 감정에 부합한 것이었는지, 그런 글쓰기가 민족문학적 시각에서 어떻게 판단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 3. 조선의 ‘아귀’가 죽음을 통해 획득한 미적 근대성

『만영감의 죽음』은 『성조기』와 유기적 상관물이다. 『성조기』는 홍지동 산장을 짓는 과정을 그린 ‘사람’에 대한 글쓰기인데, 이 수필에서 춘원은 ‘박선달’이라는 인물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된다. 춘원의 표현대로 하면 박선달은 “노신(魯迅)의 아귀(阿鬼)<sup>28)</sup>와 비슷한 점이 있어서, 인생의 한 표본

26) 위의 글, 468쪽.

27) 이 외에도 『가이조(改造)』 사장 야마모토 츠네히코(山本實彦)와의 친분 관계를 들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친분 관계는 창작의 직접적 동기라고 보기보다는 간접 동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윤식 교수가 『이광수와 그의 시대 2』(253~262쪽)에서 논하였기 때문에 참조하기 바란다.

으로 씩 재미있는 인물”<sup>29)</sup>이었다. 박선달은 일생에 십 수 명의 마누라를 얻었지만 사흘도 되기 전에 마누라들이 다 도망을 가버려 인생의 비애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다. 얼굴도 잘 나고 기운도 남보다 센 그였지만 ‘생리적 결함’ 때문이었다. 그의 국부는 ‘14, 5세의 소아를 연상케 하는’ 크기에 불과했던 것이다. ‘만영감’은 바로 이 박선달이 모델이었다. 박선달과 만영감의 인물 묘사를 비교해보면 그것은 확연해진다.

석수 박선달은 영감님이라고도 하고 박영감이라고도 하였다. (중략)

그러나 박선달은 자칭하는 거와 같이 일류 석수는 아니었다. 그는 성미가 겁겁하고 우락부락하나 뒷심이 없는 거와 같이 못쓸 바윗돌을 깨뜨려 내는 데는 상당하지마는, 재주를 부리거나 조심해서 할 일은 맡길 수가 없었다.<sup>30)</sup>

만영감은 원을 네댓 살이나 지난 채석장의 인부이다. 스스로는 석공이라고 하지만 여전한 석공은 아닌 것 같았다. 다만 화약으로 폭발된 큰 돌맹이를 도편수의 지시에 따라 치수대로 자르기도 하고, 대강대강 다듬기도 하는 모양이었다.<sup>31)</sup>

이런 박선달 혹은 만영감을 통해 춘원은 조선의 어떤 ‘아귀’를 그리고자 했던 것일까? 이를 구명하기 위해서는 고려되어야 할 점이 있다. 첫째, 만영감이 조선민중을 대표하는 전형적 인물이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둘째, 만영감의 죽음이 단순히 사랑의 실패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이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셋째, 만영감의 일탈이 공동체적 사회의 해체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공동체적 사회에서 스스로 이탈해 간 것인지

28) 여기서는 『이Q정전』의 ‘이큐’를 춘원의 글에 나오는 ‘아귀’로 통일하여 부르기로 한다.

29) 이광수, 『성조기』, 『이광수전집 8』, 256쪽

30) 위의 글, 255쪽.

31) 이광수, 『만영감의 죽음』, 『改造』, 164쪽.

를 따져봐야 한다.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훌륭한 분’이었던 최 씨 성을 가진 만영감은 친형인 ‘용영감’이 제공하는 정보에 따르면 보통의 조선사람과 그리 다를 것도 없다.

“이놈, 만이 녀석은 말이 없고, 언제나 성이 난 얼굴이지만, 근본은 정직하며, 인정도 의리도 헤아릴 줄 아는 녀석입니다. 술도 마시지 않고, 담배도 피우지 않으며, 소처럼 일을 잘하여 자신의 손으로 이만큼의 재산도 모았으며, 저놈들(친길과 삼길을 가리키며)이 어려서 아버가 죽어버려 빌어먹게 된 것을 이놈이 떠맡아 길렀지요.”<sup>32)</sup>

우직하고 착하기 그지없을 뿐만 아니라 인정이나 의리도 있어 ‘용영감’에게 있어 만영감은 평범한 동생이었을 뿐이다. 그러나 화자인 ‘나’에게 비친 만영감은 좀 다르다. ‘지력과 감정이 보통 이하였지만 바위덩이 같은 사내’로 도무지 말이 없어, 새로 이사를 와서 3년이나 이웃해 산 ‘나’는 그가 ‘병어리’인 줄 착각할 정도였다. 뿐만 아니라 ‘자식도 없고, 친구도 없으며, 이웃사람과 교제도 없고, 책도 읽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으며, 담배도 않는<sup>33)</sup> 만영감은 여느 조선사람과는 뭔가 좀 색다른 면이 있는 인물이었다.

이런 만영감은 여성 편력으로 동네 주민에게 신기한 인물로 이미지화 된다. ‘오직 여자만이 유일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만영감은 무당인 첫 부인이 어느 집에 푸닥거리를 갔다가 돌아오지 않자 그 후 여자를 열 번이나 갈아치울 정도로 여자에 관한 한은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였다. 어느 날 그는 동리에서는 미를 견줄 만한 인물이 없을 만큼 아리따운 25, 6세쯤 되는 여인 하나를 ‘경성’에서 데려오는데, 후에 그녀가 도망을 가고, 그 때문에

32) 위의 소설, 172쪽.

33) 위의 소설, 164쪽.

만영감은 ‘갠는가’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미치광이로 변해 버린다. 그렇다면 만영감은 아귀와 어떤 동이(同異)가 있을까?

『아Q정전』이 발표되자 마오둔(茅盾)은 “아큐란 사람은 아주 낮이 익다. 그는 중국인 품성의 결정이다”<sup>34)</sup>라고 말하여 ‘아귀’가 중국인의 전형적인 모습임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귀’의 전형성에 대한 다음의 평가는 매우 이채롭다.

저우양은 전형이란 “한 특정한 시대, 한 특정집단의 공통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가 대표하는 사회와 구별되는 개별적 면모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저우양은 아큐는 농민의 공통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기도 하지만 농민의 공통적인 특징과 구별되는 특수한 개별적 특징을 지닌 인물이라고 본다. 저우양은 전형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아큐는 농민이지만 보편적 농민이 아니라 농민 중에서도 특수한 존재이고, 특정 시기, 특히 신해혁명 시기의 농민이라고 규정한다.

이는 크게 보자면 신중국 성립 이후 국가주의가 직조한 문화적 기억의 전 일한 지배에 균열을 내는 한편, 그 문화적 아이콘 역할을 수행하였던 중국 현대문학 작품을 새롭게 읽어내는 일이 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현대 문학의 주요 작품들이 국가주의에 동원되어 새롭게 텍스트가 구성되면서 일그러지고 뒤틀렸던 것을 복원하여 중국 현대 문학의 명작들에게 재뭇을 찾아주는 일이자, 궁극적으로는 문학 차원을 넘어 과거 역사를 바로잡는 일의 일환일 것이다.<sup>35)</sup>

‘아귀’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그의 전형성이 다르게 평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마오쩌둥시대에는 혁명성이나 억압의 주체 문제에 초

34) 雁冰, 『通信』(1922), 이옥연, 『시대와 정전—루쉰의 『아큐정전』의 경우』, 『中國現代文學』 第30號, 228쪽 재인용.

35) 周揚, 『現實主義試論』(1936), 『典型與個性』(1936) 등 참조. 陳漱渝 主編, 『說不盡的阿Q』(中國文聯出版社, 1997), 415-416면, 428-433면. 위의 글, 231쪽 재인용.

점을 맞춰 ‘아귀’를 자리매김하고 있다. ‘아귀’는 전형성과 혁명성, 달리 말하면 변혁의 주체로서의 역할에 초점이 맞춰져 중국근대문학의 한 장을 구성하게 되었던 것이다. ‘아귀’를 억압하는 주체는 주로 ‘자오’가로 대표되는 봉건지배세력이나 ‘가짜 양놈’으로 설정된다.<sup>36)</sup>

그러나 만영감의 경우 억압 주체를 봉건지배세력으로 보기는 어렵다. 얼핏 보면 만영감을 억압하는 주체는 그의 가족과 동리의 모든 주민인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문맥을 깊이 따라가면 아주 특이한 인물이 등장한다. ‘구장’이었다. 소설에서 구장은 이렇게 묘사되고 있다.

구장이, 만영감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인명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는 점, 특히 부인에게 폭행을 가하기 쉽다는 점, 마지막으로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그것은 친족의 책임이라는 점 등, 일종의 관헌(官憲)적 위엄으로써 설명하고, 즉각 그를 병원에 입원시키든가 그렇지 않으면 폭행을 하지 못하게 보호하도록 명령했다. 구장은 배운 것은 없으나, 오랜 동안 구장을 하여 면사무소나 주재소에 출입을 한 터이라, 말하는 꼴도 관리 냄새를 풍기고 있었으며, 또 입심도 상당히 좋았다.<sup>37)</sup>

‘색광’이라는 명분으로 만영감의 인신을 구속하라고 명령하는 장본인은 ‘구장’이다. 제국주의에 의해 도입된 근대적 행정 체계는 상명하달식이다. 거기에 불복할 경우 ‘적당한 몽둥이와 튼튼한 밧줄’<sup>38)</sup>로 상징되는 위해가 가해진다. 단순히 언어적 폭력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 폭력성을 수반하는 것이 근대적 행정 체계였다. 만영감은 바로 이 근대적 행정체계의 최말단인 ‘구장’의 <명령>에 의해 인신(人身)의 자유를 박탈당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구장’은 근대행정의 의사(擬似)집행관으로 간주할 수 있

36) 위의 글, 238쪽.

37) 이광수, 『만영감의 죽음』, 170쪽.

38) 위의 소설, 171쪽.

다. 글도 몰라 책도 읽지 않는 무지하고 무자각한 만영감의 본능적 사랑은 근대적 이성으로 무장된 행정제도에 의해 고스란히 해체되고 박탈당한 것이다. 만영감의 특별한 사랑 방식은 당대 조선의 보편적 사랑은 아니었을 것이다. 따라서 만영감은 평범한 조선인이었지만 보편적 조선인이 아니라 특수한 존재이고, 특정 시기의 인물인 것이다. 저우양은 표현대로 하면 만영감은 “농민의 공통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기도 하지만 농민의 공통적인 특징과 구별되는 특수한 개별적 특징을 지닌 인물”인 셈이다. 그러나 그가 전형적 인물이건 특수한 인물이건 그의 사랑이 억압받은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의사집행관 ‘구장’이 ‘만영감’의 죽음에 간접적으로 간여하고 있다면, 그의 죽음에 직접 간여한 인물은 ‘경성’에서 데려온 ‘여자’와 만영감의 가족들이다. 사실 만영감을 미치게 만들고 급기야 죽음에 이르도록 한 장본인은 <경성에서 온 그 여자>이다. ‘뽀얀 피부에, 통통한 살이 오르고, 때를 벗은’ 그녀는 ‘자개 박힌 장롱이나 일본 경대’를 쓸 정도여서 “아무래도 이 마을 사람으로는 생각되지 않았다.”<sup>39)</sup> 그녀는 동리에서 ‘나의 집 이외에는 아무도 설치하지 않은 ‘전등’이라는 <근대의 불빛>을 설치해 달라거나, 만영감의 땅과 집을 자신의 명의로 돌려달라고 당당히 요구할 줄 아는 여자였다. 근대적 무늬로 치장되어, 도무지 만영감과과는 ‘궁합이 맞지 않’을 것 같은 그 여자가 만영감과 붙어사는 것은 바로 이런 근대의 속성들 때문이었다. 만영감에게 그녀는 ‘돈으로도 목숨으로도 바꿀 수 없는’<sup>40)</sup> 존재였지만, 그녀에게 만영감은 토지나 집으로 상징되는 자본이었을 따름이다. 이 어긋남이 바로 만영감의 죽음을 재촉하는 화근이 된다. 만영감의 사랑이 자본의 근대에 굴복하는 모습은 고리대금업에 의해 켜기를 박는다.

39) 위의 소설, 165쪽.

40) 위의 소설, 166쪽.

만영감은 여자가 도망간 뒤 보름간 일을 쉬었다. 그러나 그에게 지금은 없었다. 그의 재산이라고는 2백여 평 되는 매우 경사진 땅의 과수원과 쓰러질 것 같은 자그마한 집뿐이었다. 금전으로 환산하면 겨우 6백 원 남짓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부동산은 연 6할이나 이자를 물어야 하는 2백 원의 고리채에 저당 잡혀 있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그가 말한 대로 여자를 위해 자개로 세공된 장롱이나 일본 경대를 사기 위해서는 또 백 원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의 하루 2원 정도 채석장 수입으로는 여자의 화장값이나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더구나 비가 오는 날은 채석장을 쉬어야 했다. 한 달 이상의 장마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5, 6십 원의 돈을 모아둘 필요가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또 연 6할 이자의 돈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는 믿을 수 없는 젊은 여자를 감금하면서까지 일을 하러 나가지 않을 수 없었다.<sup>41)</sup>

연 6할이라는 살인적인 고리대금을 빌려서라도 여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려 했던 만영감의 사랑은 간절했다. 하지만 만영감이 ‘믿을 수 없는’ 여자를 지키기 위해 벌이는 행동에서 죽음으로 내모는 고리대금업을 비판하는 춘원의 의도를 읽어내는 것은 중요하다. 춘원은 만영감의 우직한 애정행위와 그것을 방해하는 근대적 속성을 병립시켜서 근대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근대적 속성으로 치장한 ‘믿을 수 없는’ 그녀와의 사랑싸움이 실패로 끝날 것이라는 것은 소설 첫머리부터 예정되어 있었다. “끝날 줄 모르는, 구슬품과 원망을 호소하는 원혼의 절규처럼”<sup>42)</sup> 울어대는 북한산 자락의 빠꾸기의 울음소리가 예사롭지 않음은 바로 그 때문이다.

‘14, 5대나 살아와 마을에서는 명문가’의 일원인 만영감의 몰락은 근대 행정체계의 말단인 구장, 경성이라는 도회에서 온 여자, 그리고 고리대금업이라는 근대의 속성들이 합체하여 만들어낸 산물이다. 억압하는 주체로

41) 위의 소설, 168쪽.

42) 위의 소설, 162쪽.

서의 근대와 그것에 의해 미치거나 죽는 것으로 결판나고 마는 만영감의 대립은 「만영감의 죽음」이 도달한 미적 근대성이며, 세계성이다. 정신승리 법이나 논하면서 끊임없는 수모를 웃어넘기거나 계속되는 핍박과 굴욕에도 분노할 줄 모르는 무기력한 노신의 아귀와 근대적 속성에 속수무책인 춘원의 아귀는 그런 점에서 서로 닮았다. 그러나 자신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뭔가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점에서 춘원의 아귀는 노신의 아귀와 다르다. 따라서 만영감은 근대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몰락해간 수많은 조선인의 한 전형이면서, 특수한 개인이라고 할 수 있다.

만영감의 죽음이 더 비극적인 것은 이런 근대적 속성에 더해 전통적인 질서에 무비판적으로 길들여진 가족들의 강고한 사고가 만영감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기 때문이다. 답답한 전통 질서 속에서 움짱달짝하지 못하는 가족공동체의 모습은 만영감이 그의 토지와 집을 여자와 공동명의로 바꾸려는 것에 대한 반응에서 잘 나타난다.

그런데 용영감은 죽석에서 아우의 불찰을 꾸짖었고, 이에 멈추지 않고 조카들에게도 말을 해버렸다.

「삼길야. 큰일났다. 네 몫이 될 재산이 그 여자 손에 들어가 버렸다.」  
라고 말하여 삼길의 형인 천길이나 복길이나 그들의 어머니, 그리고 그들의 고모이자 동시에 용영감과 만영감의 누이가 되는 산 너머 고모라 불리는 무당 좋아하는 여자가 모여서 협의를 하여 만영감의 분별없는 계획을 막으려 했던 것이었다. (중략)

「그런 여자에게 재산을 넘겨주면 난 양자 따위는 안 할 겁니다. 아버지가 죽더라도 난 상주도 안 할 겁니다.」

라고 삼길이가 고함치는 소리가 내 집까지도 들렸다. 삼길은 시내의 보통학교 3학년까지 다녀서 이 마을에서는 도회풍의 신청년 중 한 사람으로 경찰을 두려워할 뿐, 그 외에 두려울 것이 없는 계급에 속하는 사내였다.

친족들이 협의한 결과, 최가의 재산을 생판 남인 그 여자에게 넘겨주는 것

은 최가 가문의 수치라는 결론에 도달하여, 만영감의 형인 용영감이, 집안사람들 앞에서 이러한 선고를 전달한 것이었다.<sup>43)</sup> (강조 : 인용자)

‘명문가’의 후예답게 가족들은 ‘분별없는 계획’을 세운 만영감의 ‘불찰’을 꾸짖을 뿐만 아니라 가족의 ‘협약’ 하에 최씨 가문의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선고’를 내린다. 가문이라는 전통은 만영감의 사랑쯤은 무시하거나 꾸짖을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권위는 위압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만영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집행되었다.

그런데 가문이나 가족의 협약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위압적인 힘도 따지고 보면 ‘토지와 집’이라는 달콤한 자본의 앞에서는 나약하기 그지없는 것이었다. 그 자본이 매개되지 않았다면 권위적인 힘이 만들어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힘은 한 순간에 사라지고 말기 때문이다. 아버가 사망한 뒤 빌어먹게 생긴 삼길의 형제들을 거둬주었을 뿐만 아니라 삼길을 양자로 삼아 세 살부터 열다섯 살까지 친자식처럼 길러준 만영감의 헌신적인 보살핌은 돈 앞에서는 손바닥 크기만큼의 가치도 없었다. 특히 ‘도회풍의 신청년 중 한 사람’이며 경찰 외에는 ‘두려울 것이 없는 계급’인 삼길에게 있어 자본의 위력은 다른 사람에게 비길 수 없을 만큼 대단한 것이었다. 상속되지 않는 재산 앞에 양아버지라는 이름은 빈껍데기에 지나지 않았다. 삼길에게 가문의 힘은 바로 자본의 힘이었고, 도회풍의 신청년에게 그것은 일상화된 내면이었던 것이다. ‘돈’으로 상징되는 <도회풍>의 이성적 사고 앞에서 ‘사랑’이라는 비과학적, 비논리적인 가치는 해체되고 만 것이다. 이런 점에서 『만영감의 죽음』은 “가족·마을공동체의 이데올로기적 권력이 그 시스템 내부의 이질적 존재를 배제해 나가는 과정을 그린 소설”<sup>44)</sup>이라고 할 수 있다.

43) 위의 소설, 169쪽.

44) 정백수, 앞의 책, 174~5쪽.

그러나 그 권력 내부에 도사리고 있는 근대 자본의 속성을 빼놓고서는 시스템의 내부를 제대로 들여다보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지고 보면 만영감은 전통적 질서의 언저리에서 살면서 근대의 속성에 의해 무너져 내렸지만, 그가 선택한 사랑을 위하여 스스로 미쳐감으로써 공동체의 질서에서 자신을 윤택시키는 방식으로 근대와 전통적 질서에 대항한 셈이었다. 이처럼 춘원은 만영감의 죽음을 통해 재구성된 근대의 폐해를 제국의 언어(일본어)로 비판함으로써 언어를 초월한 문학의 미적 가치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럼으로써 『만영감의 죽음』은 세계성을 지향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일제라는 근대의 위물성에 대한 비판은 검열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일본어는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의 방편일 수 있었다.

그렇다면 춘원이 만영감을 통해 보여주고 싶은 사랑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즈음 춘원이 가슴에 담아두고 있던 사랑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오늘날까지의 문학에는 원망이라든가 질투라든가 욕심이라든가 미움이라든가, 이러한 사나운 감정이 너무 많이 취급되고 강조되지 않았는가 한다. 이러한 추폭한 감정은 늘 사람에게 불행과 악을 주는 근본이 된다.

사랑이라는 부드러운 감정조차도 많은 문학에서는 사나운 감정을 곁들이기를 좋아하였다. 이것은 대조라든가 대중의 심리에 맞춘다든가 하는 문학적 기술의 편의를 위함도 있겠지만 역시 사람에게 있고 싶고 발달되고 싶은 것은 부드러운 감정일 것이다.

사랑, 동정, 기쁨, 슬픔 들들. 이러한 부드러운 감정만으로 문학적 작품을 만든 이가 과거에도 없지는 않았다. (중략)

사람은 저마다 제 오막살이 한 간을 가지고 있는 모양으로 저마다 제 세계 하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오막살이들이 다 대견치 못한 것임과 같이, 사람은 항상 제가 들어앉은 세계를 벗어나서 더 크고 넓은 세계를 찾아야만 한다.

『끝없이 높은 사랑을 찾아 향상하러』는 애씀—

여러분이어. 이것은 또한 아름다운 제목이 아닐까.5)

‘갔는가’라고 외치는 만영감의 사랑에 대한 울분은 죽어가면서 찾던 물 한 모금으로 씻겨 내려갈 갈증은 아니었다. 단순하고, 무식하고, 어리숙해 보이는 사랑일지언정 육정적인 사랑을 넘어서는 ‘끝없이 높은 사랑’을 ‘만영감’을 통해 춘원은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 사랑이 『무정』류와 다른 것은 계몽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답답한 사랑, 무지한 사랑을 통해 진리를 드러내는 방식을 선택한 춘원의 소설적 기법에 만영감은 썩 잘 어울리는 인물이었다. 그리고 만영감은 ‘박선달’이라는 ‘사람’의 근접 촬영을 통해 활사(活寫)된 것이기 때문에 이전의 추상적, 이론적 사랑을 뛰어넘고 있다. 아울러 ‘조선의 아귀’에 대한 춘원의 욕망은 비굴하고 무기력에 빠진 자신의 자화상뿐만 아니라 식민지의 자화상을 보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만영감이 죽음으로써 모든 것은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사랑의 고귀한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정신승리법>이었다. 따라서 “젊은 시절부터 가져온 동포들에 대한 계몽자 내지 교사 의식을 넘어서는 길목에서 루쉰과의 만남이 있었다는 것은 의미 있는 발견”<sup>46)</sup>이었다.

마지막으로 노신의 『아Q정전』이 갖는 의의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필자는 노신의 언어관에 주목하고자 한다. 중국에서는 노신을 근대소설 장르를 개척한 작가로 평가하고 있다. 그런 평가는 그의 문체관과 근대의식에 서도 연유한다.

요컨대 이 한 편(阿Q의 일생 이야기)은 역시 ‘本傳’이 되겠지만, 내 문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문체에 품위가 없어 ‘인력거꾼이나 콩국팔이’가 쓰는 말이기 때문에 本傳이라고 주제넘게 지칭할 수도 없다.<sup>47)</sup>

45) 이광수, 「높은 사랑을 향하여」(『삼천리』, 1938. 11), 『이광수전집 8』, 484~485쪽.

46) 임명신, 『아Q정전』, 살림, 2006, 119쪽.

47) 루쉰, 『阿Q正傳』, 『魯迅全集』 1, 이보경, 「<阿Q正傳>이 ‘阿Q正傳’이 된 까닭」,

노신은 스스로의 문체를 “품위가 없어 ‘인력거꾼이나 콩국팔이’가 쓰는 말”이라고 하여 ‘본전’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 이 말은 중국근대소설사의 흐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대단히 의미심장한 말이다. 노신은 스스로 ‘인력거꾼이나 콩국팔이’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임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는데, 이 말은 곧 노신이 “고문(古文)이라는 문체 권력에 대항하여 인력거꾼이나 콩국팔이 같은 하층민중들의 언어를 의식적으로 지향하고”<sup>48)</sup> 있었음을 의미한다. 노신에게 있어 문체의 변혁은 곧 의식의 변혁이었다. “문학 작품과 그 작품이 모방하는 현실 사이의 일치라는 문제에 대해 주의를 기울”<sup>49)</sup>일 때 문체 변화는 가능하며 리얼리티 또한 확보될 수 있다.

『만영감의 죽음』을 노신의 언어관에 견주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만영감의 죽음』이 미적 근대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할 때 그것은 문체 변화와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다. 『만영감의 죽음』은 춘원의 이전 소설에서는 잘 등장하지 않던 ‘채석장 인부’를 주인공으로 상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노신이 말한 ‘인력거꾼이나 콩국팔이’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다는 의미일 테고, 그 변화된 의식에 버금가는 문체상의 변모를 가정해 볼 수 있다. 이런 변화의 일단은 ‘이 놈(こいつ, こら, 奴)’, ‘바보 같은 놈(馬鹿野郎)’ 같은 비속어들에서 우선 확인할 수 있다.<sup>50)</sup> 즉 하층민들의 언어에 대한 의식적 관심은 새로운 방식의 글쓰기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문체의 변화는 춘원의 일본어글쓰기와 상보적인 관계였다고 볼 수 있다.

만영감의 사랑은 실패했지만 어찌면 시대적 임무를 완수하였고, 이제 만영감의 시대는 죽었다. 『만영감의 죽음』은 춘원문학이 보여준 새로운 글쓰

『중국어문학』 제50집, 2007. 12, 373쪽 재인용.

48) 위의 글, 375쪽.

49) 이언 와트, 앞의 책, 20쪽.

50) 『만영감의 죽음』을 비롯하여 이후 쓰인 작품들과 이전의 작품들의 문체 변모에 대한 고찰은 과제로 남겨 둔다.

기의 한 모습이었지만 만영감은 그 시대를 초월하지는 못했다. 조선의 아귀 만영감은 우직한 조선민중의 특성을 내포하고 있으면서도 특수한 개인의 위치에 놓임으로써 시대를 초월하지 못하였지만, 시대를 넘어서려는 그의 의지는 춘원 문학이 이룩한 미적 결실인 셈이다. 죽음을 통한 미적 근대성은 이렇게 획득되고 있었다. 이후 전개된 「무명」 등의 소설이 갖는 미적 근대성은 「만영감의 죽음」이 다져놓은 초석이었던 것이다.

#### 4. 결론

지금까지 「만영감의 죽음」에 나타난 구장, 경성에서 온 여인, 고리대금업이라는 근대적 위물들과 자본의 속성에 길들여진 전통으로 위장된 권위라는 공범에 의해 만영감이 살해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춘원은 근대 이후 ‘우리’라는 공동체를 상상하게 만들어준 문학을 통해 근대 자본의 속성이 어떻게 인간을 황폐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만영감의 죽음」 통해 재구성함으로써 이식된 혹은 일체에 의해 양산된 근대의식의 폐해를 제국의 언어인 일본어로 고발하였다. 춘원에게 있어 일본어의 선택은 대중성과 예술성이 확보된 미학적 글쓰기, 조선문학의 세계적 수준관계고, 검열을 통과하기 위한 소설적 책략이었기 때문에 일본어 선택만을 두고 친일문학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그리고 견고한 전통적 질서에 대한 만영감의 거부(광인이 되거나 죽는 행위)는 사랑이라는 이름에 성스러움을 부여하기 위한 만영감의 처절한 몸부림으로 간주할 수 있다. 만영감의 사랑이 근대 자본의 논리와 자본에 물든 전통적 질서에 의해 거부되고 좌절되었을 때 만영감은 스스로 광인이 되어 전통적 질서에 포섭되는 대신 그 공간에서 스스로를 윤패시킴으로써 자유를 얻으려 했다. 그것이 「만영감의 죽음」이 도달한 미적 근대성이었으

며, 그 근대성은 세계성을 지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문학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춘원의 일본어글쓰기가 예사롭게 보이지 않음도 사실이다. 왜냐하면 창씨개명과 암흑기에 보여준 그의 일본어글쓰기가 남긴 과오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다음의 시는 생각의 여지를 많이 남긴다.

세상은 내가 「죽을 죄로 잘못했습니다. 나는 내 명리를 위하여서 민족을 반역했습니다」 하는 참회만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리 겸손을 꾸미더라도 그런 거짓말은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어리석었다면 그것은 수궁도 하겠습니다.

대국(大局)을 볼 줄 몰랐다 하면 그럴 법도 하겠습니다. 저를 모르는 과대 망상이었다 하면 그럴 법도 하겠습니다. (중략)

그러나 나는 내가 할 일을 하여 버렸습니다.

내게는 아무 불평도 회한도 없습니다.

나는 「민족을 위하여 살고 민족을 위하다가 죽은 이광수」가 되기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천지가 이를 알고 신만이 이를 알 것입니다.<sup>51)</sup>

“민족을 위하여 살고 민족을 위하여 부끄러움이 없다”고 하는 자신감이 나 “자신을 희생해서 몇 사람이라도 동포를 핼박에서 건지자”<sup>52)</sup>는 마음이 있었다고 강변하는 춘원의 당당함은 어디에서 연유한 것일까? 춘원의 이런 속내는 그의 친일 관련 작품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할 숙제를 우리에게 던진다. 앞으로의 과제다.

51) 이광수, 『인과』, 『이광수전집 9』, 541쪽.

52) 이광수, 『서문-〈나의 고백〉』, 『이광수전집 10』, 539쪽.

## 【참고문헌】

- 김미영, 『이광수(1892-1950)의 일본어 소설 연구』, 『한국현대문학학회 학술발표회자료집』, 한국현대문학회, 2008, 86쪽
- 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 2』, 솔출판사, 1999, 253~262쪽
- 이광수, 『그의 자서전』, 『이광수전집 6』, 347쪽
- \_\_\_\_\_, 『높은 사랑을 향하여』(『삼천리』, 1938. 11), 『이광수전집 8』, 484~485쪽
- \_\_\_\_\_, 『동경구경기』, 『이광수전집 9』, 187쪽
- \_\_\_\_\_, 『문학에 대한 소견』(『동아일보』 1929. 7. 23~8. 1), 『이광수전집 10』, 458쪽
- \_\_\_\_\_, 『서문-〈나의 고백〉』, 『이광수전집 10』, 539쪽
- \_\_\_\_\_, 『성조기』, 『이광수전집 8』, 253쪽
- \_\_\_\_\_, 『심적 신체제와 조선문학의 진로』, 『매일신보』, 1940. 9. 10.
- \_\_\_\_\_, 『여의 작가적 태도』(『동광』 1931. 4), 『이광수전집 10』, 460쪽
- \_\_\_\_\_, 『외래어와 조선어 강연기』(『계명』 1932. 7), 『이광수전집 8』, 659쪽
- \_\_\_\_\_, 『인과』, 『이광수전집 9』, 541쪽
- \_\_\_\_\_, 『조선문학의 개념』(『신생』 1929. 1), 『이광수전집 10』, 451쪽
- \_\_\_\_\_, 『조선문학의 발전책』(『조광』 1936. 10), 『이광수전집 8』, 612~614쪽
- \_\_\_\_\_, 『조선의 문학』(『삼천리』 1933. 3), 『이광수전집 10』, 468쪽
- 이광수 외, 『장편작가회의』(『삼천리』 1936. 11), 『이광수전집 8』, 655쪽
- 『이광수씨와의 일문일답기』(『신인문학』, 1936. 1), 『이광수전집 8』, 645쪽
- 이보경, 『〈阿Q正傳〉이 ‘阿Q正傳’이 된 까닭』, 『중국어문학』 제50집, 2007. 12, 373쪽
- 이육연, 『시대와 정전—루쉰의 『아큐정전』의 경우』, 『中國現代文學』 第39號, 228쪽
- 이중오, 『이광수를 위한 변명』, 중앙M&B, 2000, 192~212쪽
- 임명신, 『아Q정전』, 살림, 2006, 119쪽
- 정백수, 『한국 근대의 식민지 체험과 이중언어 문학』, 아세아문화사, 2000, 161쪽
- 이언 와트, 전철민 역, 『소설의 탄생』, 열린책들, 1988, 22쪽
- 藤井省三, 『동아시아의 諸「國語」文學と「國民」映畫』, 『帝國日本の學知 第5券-東アジアの文學・言語空間』, 東京: 岩波書店, 2006, 10쪽

Abstract

A Study on the Aesthetic Modernity of Death  
- Focused on *Death of Man Yeong-Gam* of Lee Kwang-Soo

Roh, Sang-Rae

The death of Lee Kwang-Soo's second son, Lee Bong-Geun, brings about an epoch in Lee Kwang-Soo's sense of values. Especially, *Death of Man Yeong-Gam* written in Japanese language is a watershed in his literary career, that is, from a literature as an ideology to a literature as an aesthetic object.

Though it is written in Japanese language, it is a work of difference with his previous works in his literary outlook. It can be said that it is adjacent to the essence of modern novel in that it is not a work of heroic protagonists such as Ahn Chang-Ho or Lee Soon-Shin and of a nationalistic grand discourse but a work of 'person' who is supposed to meet in ordinary lives. Especially, it is notable that he brings out prominently his spirit as a writer, with which indicts the pursuit of material immersed in modern societies, and also with which seeks to deconstruct the false authority of traditional order in collusion with capital. This literary quality of him is hardly ever seen before.

Lee Kwang-Su acquires an aesthetic modernity of death by way of Man Yeong-Gam, the protagonist of the novel, who dares any danger including his own death for supreme and purest love. This aesthetic modernity means a modernity of his literary outlook. And it has a significant meaning in that it gives us a basis of anticipation and understanding for his further development of his novel.

Key-words : Writing on person, Death, Aesthetic modernity, Popularity, Japanese writing.

노상래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주소 : (706-777)대구시 수성구 수성4가 수성보성타운 107동 1802호

전화번호 : 053-810-2117, 010-9812-8674

전자우편 : yunc82@ynu.ac.kr

이 논문은 2009년 10월 31일 투고되어  
2009년 12월 18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09년 12월 19일 게재 확정됨.